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반년** 우리의 힘을 모으자

1월 20일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는
얼어붙었다

故 이상림, 故 양희성, 故 이성수,
故 윤용현, 故 한대성.

더 이상 발붙일 땅이 없어 하늘 꼭
대기에 오른 사람들, 살기 위한 처
절한 몸부림들, 그 위태로운 운명들,
단 하루만에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내려온 철거민
들, 화마에 그을려 사지가 오그라든
다섯 구의 생명들, 차가운 칼날에 갈
기갈기 찢겨진 시신들이 반년 가까
이 차가운 냉동고에 얼어붙어 있습
니다. 그 외로운 원혼들이 냉동고에
갇혀 있습니다.

엄동설한에서 따뜻한 봄으로 다시
뜨거운 여름으로 계절이 두 번 바뀌
었지만 2009년은 여전히 1월 20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
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용
산 철거민,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인권
과 민주주의가 여섯달 째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1월 20일
그날 그대로 흑독한 겨울입니다.

반년 동안 용산참사 외면하는 정권
정권은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

죄,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라
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진실을 은폐
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바빴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테러범
으로 매도하더니, 살인마 강호순 사
건을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
다. 정권은 충실한 주구 경찰을 앞세
워 추모와 저항의 물결을 모조리 억
누르고 전철연과 범대위를 탄압했습
니다. 검찰은 갖은 꼼수로 국민참여
재판을 무산시키더니 솜제 수사기록
을 은닉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로 물든 포클레인
으로 돈을 주워 담으려는 건설재벌
투기꾼들, 그 뒤를 봐주는 경찰과 지
자체, 그들의 행동대장인 용역강패,
이들 살인개발 삼각동맹이 다시 행
동을 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찰
의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준 공안검
사 천성관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으
로 내정했습니다. 경찰특공대는 용
산 참사를 재연하며 서민들을 테러
리스트로 규정하고 살인진압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
는 재개발 대책을 내놓고 오히려 뉴
타운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살인진압의 주범들이, 국정쇄신 한
답시고 서민대책 운운하던 정권이
참사 해결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는 것입니다. 참담한 심경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게 준엄히 경
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할 만
큼 당했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참사 반년이
되는 7월 20일까지 진심으로 사과하
고 즉각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의 마지막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
서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
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상한 행
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피 끓는 심경으로 호
소합니다. 차마 반년을 넘길 수는 없
습니다.

참사 반년이 되는 7월 20일까지 열
흘간의 범국민추모주간에 국민 여러
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명박 정
부의 사과를 받아내고 진상을 규명
하여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
립시다.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
하고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하여

열사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합
시다. 하루 속히 열사들의 장례를 치
러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립니다.

유가족과 범대위도 정말 마지막이
라는 각오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
원해서 싸우겠습니다.

용산참사 해결위해, 우리의 모든 힘
을 모으자

국민 여러분, 가진 자들만의 이익
을 대변하는 저 불의한 동맹을, 그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저들의 폭압
을 멈추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용산
참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
들의 힘이 강할지 몰라도, 우리는 불
의와 어둠이 정의와 진실을 향한 우
리의 거대한 힘과 끈질긴 생명력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6
개월간 증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
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분노, 모든 힘을 모
아 결연한 행동에 나섭시다.

**7.20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 추모의 날**

- 국민 분향 (오전 8시부터 ~ 24시까지)
- 용산참사 반년, 500인 농성단 집결 (14시, 용산현장)
- 용산참사 열사 위령제 (15시, 순천향 병원)
-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추모대회 (20시)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라!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용산참사 반년, 투쟁의 기록



◀ 지난 1월 20일 용산의 남 일당 현장에서는 경찰의 살인 진압에 의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생존권을 주장하는 철거민 투쟁에 대해 유례없는 강경진압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 사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 참사 발생 당일 범대위가 구성되었고 1월 20일 저녁 분노한 시민들이 용산으로 모여 들었다. 범대위는 1월 24일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어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뉴타운, 재개발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하였다.



▲ 검찰은 예정된 각본대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범대위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사망선고를 내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이는 무산되었다. 검찰은 수사기록마저 은폐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갔고, 이명박 정권은 비리검사, 용산참사 진실은폐 주범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용산 참사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는 데 여념이 없다.



▲ 용산참사 유가족과 전철연, 범대위 참여단체 등은 지난 6개월간 피눈물로 투쟁해왔다. 국회, 청와대, 한나라당, 검찰 등 용산 참사의 주범에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해왔고, 삼보일배, 오채투지, 농성 등을 벌여왔지만 정부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추모집회 불허, 유가족 폭행, 연행 등 온갖 탄압을 일삼았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매일 수십명의 용산지킴이가 현장 농성을 함께하고 있고, 천주교사제단의 추모미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다.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산 4구역 철거민 회원들의 투쟁과 용산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추모와 저항의 물결을 물러섬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개발-학살동맹 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한편, 참사에 대한 아무런 해결 과정 없이 용산 4구역 살인개발은 재개되었다. 재개발 조항과 철거용역업체는 철거민들은 물론 사제단에 대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며 살인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폭력행위를 눈감아주며 농성장 침탈 등 일상적인 탄압을 자행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권은 개발로 인해 생존의 벼랑에 선 철거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막가파 개발을 밀어부치고 있다.

검찰이 감춘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법원명령 거부하고, 수사기록 은폐하나

용산참사와 관련 구속된 철거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나, 검찰이 수사기록 1만 여 쪽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공개 자료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사기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명령했으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명령까지 거부하면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시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나라의 사법부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쪽, 살인진압 핵심 책임자들의 진술, 용역과 경찰의 유착관계 기록 등 담겨

'미공개 3000여 쪽'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청 기동단장,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 등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에는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진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거민과 경찰의 죽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경찰이 건설재벌과 불법용역업체와 결탁하여 철거지역에서 어떠한 폭력을 자행하는가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성관의 용사수사 지휘 믿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은폐하여 진실을 감추고자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수사기록을 은폐한 용산지휘 검사장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여 진실을 덮고자 하였습니다.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뻔뻔한 주장을 늘어놓았고, 결국은 그 자신이 집과, 차, 아들 병역비리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서 결국은 낙마하였습니다. 28억 원짜리 아파트를 23억 원을 빚내서 사는 과정에서 그냥 '조금 아는'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빌렸다는니 하는 등 기가 막힌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비리 인사가 검찰 고위직에 버젓이 앉아 있고 심지어 국가의 핵심 기관인 검찰의 총수에 임명되었다니 정말 씩어도 제대로 씩어빠진 나라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철거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우는 편파적인 왜곡 수사를 벌이더니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는 씩은 검찰,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용산 참사 편파, 왜곡 수사로 경찰과 용역 강패에 면죄부를 주고 수사 기록까지 은닉하며 사법질서를 유린한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모두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중범죄자들입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고 유족과 구속된 철거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살인개발 책임자 오세훈 서울시장 살인개발 중단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 '5mb',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50개를 공약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살인진압 이명박, 살인철거 오세훈

용산 철거민들의 죽음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에 의한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진압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든다며, 개발지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책 없는 살인개발에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용산을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하는 화려했고 거대한 개발계획을 속도전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개발한 서울시의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개발을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안에 밀어붙이려고, 서울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용산참사 책임회피

그럼에도 살인개발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부시장은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로,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의 생존권 보장없는 살인철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참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경제문화도시 등등의 서울시 개발 수식어에서, 문화와 생태, 디자인

으로 걸 포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 이면에 불도저식 막개발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서울시 재개발 보완대책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보완책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역시 세입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보상금 몇 푼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임시상가와 개발 후 임대상가를 통해 장사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박하지만, 절박한 생존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철거민 생존권 보장없이, 용산참사 해결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개발보다 인간입니다. 도시서민 다 내쫓는 무분별한 개발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용산4지구에 재개발 살인개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임시상가, 임대상가 등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돌아가신 철거민들이 망루 위에서 외쳤던 용산4지구 철거민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없이는, 용산참사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전역의 개발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겸허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폭우 속에서 지속되는 시청앞 노숙농성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서울시 규탄 1인시위 및 노숙 농성

지난 7월 8일부터 용산 4상공철거민들이, 생존권 쟁취와 서울시 살인개발을 규탄하는 노숙농성을, 서울시청 별관 입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숙농성 이후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비를 피할 임시 천막조차 경찰은 허락하지 않고 철거해 버렸습니다. 철거민 열사들의 염원이었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힘겨운 노숙투쟁에 많은 지지와 연대바랍니다.



▲ 스티로폼으로 임시 천막을 만들어서, 장대비를 피하로 있는 용산 철거민들. 그러나 서울시는 이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부숴버렸다. 탄압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용산참사 관련 구술집과 DVD를 판매합니다



[구술집] 대한민국 개발 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람이 있다

삶이 보이는 창 간행

개발에 저항한 '난장이'들의 삶, 일상, 투쟁을 받아 적다

* 판매가 : 용산 현장판매 및 단체주문 1만원 (서점가 13,000원)

DVD 2009 인권영화제 개막작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 두번째 이야기]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살아서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2009년 1월 대한민국 수도서울 용산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으로, 떠날 수 없는, 남겨진 이들의 삶을 담았다.

* 상영시간 : 60분
* 판매가 : 1만원
* 구입문의 : 용산범대위 02) 795-1444
mbout@jinbo.net



용산참사 유가족 호소문

반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용산참사 다섯달 추모대회에서 경찰에 의해 영정사진이 훼손되자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다.

한 달, 두 달, 백일……. 그런데 얼마 안 있어 7월 20일이면 반 년이 됩니다.

이제 하루 이틀 날짜 세기에도 무감해져 버렸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남편, 아버지의 시신은 여전히 냉동고에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유족은 영정사진을 들고 이 거리 저 거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정말이지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신부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연극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 사진과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하나같이, 부모님과 아이들도 손을 잡고, 경향각지 노동자들도, 촛불시민들도 우리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돈을 모아 주셨습니다. 남일당은 꽃으로 걸개그림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만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은 고마운 분들의 손길을 거두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께 폐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반년의 세월동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는 앞서 싸우시다 감옥까지 드나드는 여러분들께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 싸움 마무리하고 장례를 지내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단 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공개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찢어지고 보는 분들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저희를 이렇게 내몬 이명박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퐁퐁 숨겨둔 3천쪽을 공개하고, 이 사건을 은폐, 왜곡, 조작한 당사자인 천성관씨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을 대통령이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시장

또다른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재개발을 멈추고 순환식개발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지내야겠지요.

만약 그래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반년이 되는 날 우리는 다섯 분의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갈 것입니다. 그 분들의 장례를 지내주든지 아니면 우리까지 죽여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시신들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고인

앞에 사죄하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다섯 분 우리의 남편, 아버지, 그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마운 손길을 거두기 위한 싸움이라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2009년 7월 11일
용산참사 유가족 일동

함께합시다!

- 매일 저녁 7시 용산참사현장의 추모미사와 촛불추모제에 함께 합시다.
- 매주 토요일 용산현장 및 서울도심에서 있는 범국민추모대회에 함께합시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사제단의 시국기도가 용산참사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사회각계의 농성도 90여일이 넘었습니다. 용산참사현장에 지지 방문과 농성에 결함합시다.

- 유족돕기와 부상자 병원비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합시다.
국민은행 295401-01-156716 (이종회)
농협 067-02-302163 (이종회)